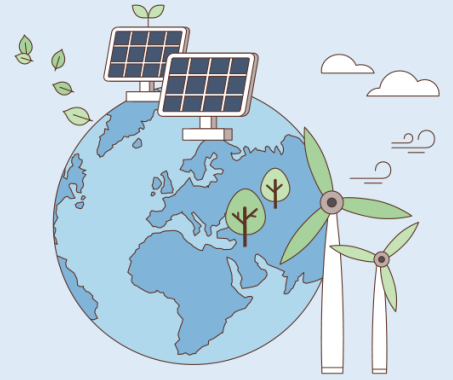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SG/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한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내년 전기요금 5.6%↑ *아이뉴스24*
- 신규 석탄발전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락...탈(脫)탄소 바람에 직격탄 *녹색경제신문*
- SK, CES서 '탄소없는 삶' 비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다 *머니투데이*
- 구내식당서 '비건 샌드위치' 먹어볼까...대체육 메뉴 소비자 결으로 성큼 *한국일보*
- SK스퀘어, 국내최대 농업 혁신기업 '그린랩스'에 투자 *서울경제*
- 물 안쓰는 '친환경 CO.세탁기'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 효성첨단소재, 글로벌 ESG 평가기관서 '골드메달' 등급 획득 *머니S*
- 현대엔지니어링, 3조원 규모 우즈베키스탄 GTL(가스 액화) 플랜트 준공 *녹색경제신문*
- 국내 기업 85%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 동참 의향 있다" *서울경제*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간판 바꾼 대기업 경제畵 "그룹 싱크탱크 역할 집중" *파이낸셜뉴스*
- CJ '이재현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 승진 *디지털타임스*
- 창호강자 KCC그룹 신한벽지 인수...'통합 인테리어' 포석 *머니투데이*
- 구본준 회장, LH홀딩스 주식 1500만주 자녀 증여 *더팩트*
- 야놀자, 인터파크 2,940억에 인수 완료 *서울경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ESG특 출범, 비상임 참여 확대 *헤럴드경제*
- 게임업계도 'ESG 경영' 바람...경영위 신설·보고서 발간 *이코노미리뷰*
- "한숨 돌렸지만"...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산넘어 산' *이데일리*
- '3세 경영' 속도내는 SPC그룹...허진수-허희수 '두 아들' 전면 배치 *이코노미스트*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文대통령 만난 구광모 "기업과 청년 원원"...일자리 3만9000개 창출 *뉴스1*
- "CEO에 준법의무 부과"...삼성증권 컴플라이언스, 재계 '스탠다드' 된다 *이데일리*
-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전...건설업계, 안전조직 강화·CSO 배치 *이코노미스트*
- CJ, '역대 최대' 여성임원 배출..."삼성전자 앞지른 회사 어디?" *뉴스1*
- 100대 기업 여사외이사 1년 새 급증...35명→67명 *뉴스1*
- 무기한 파업 들어간 CJ대한통운 노조... 쌓이는 택배 *조선비즈*
- 라이엇게임즈, 성차별 소송 1억 달러 지불 합의 *한스경제*
- 9년 만에 중정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한경비즈니스*
- 방통위, '부당 위약금 부과' KT에 과징금 22억여원 *뉴스1*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오늘의 ESG 위기는 내일의 기회"...MSCI가 본 2022년 ESG 트렌드는 *녹색경제신문*
-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에 앞장 *한경비즈니스*
- 블룸버그가 꼽은 "2022년 ESG 5가지 새로운 트렌드" *한스경제*
- ESG 열풍 이어지는데...'나쁜 기업' 투자하는 BAD ETF 시선 집중 *매일경제*
- FN가이드, ESG펀드 정보 KRX 공급...인증사업 '탄력' *더벨*
- "그린워싱은 이제 끝"...환경부, K-녹색분류체계 발표 *녹색경제신문*
- KIC, 조직개편 통해 글로벌 선도 국부펀드 도약 *서울경제*
- 영국 직장연금펀드, 5개 화석 연료 기업 지분 매각 *한경비즈니스*
- 환경(E)에 치우친 ESG 경영, 무게 이동 일어나나...EU 소셜 택소노미 발표 *녹색경제신문*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ESG 현황 및 정책

- 국민연금연구원 21.12.27

A

- 국민연금의 5개 자산군 중 대체투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 자산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외부로 덜 공개되고 있어 투자 자산의 사전적·사후적 위험 관리가 중요함
- 이에 기금운용본부 내부보다는 외부 자산운용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주식 및 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사모투자의 경우 국내는 자금의 98.9%, 해외는 자금의 100%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에 대해 ESG 투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가 현재 ESG 투자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Blackstone은 일임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Blackstone은 내부 ESG 팀 이외에 투자팀, 자산관리 및 포트폴리오 운용팀, 준법감시팀, 인사팀, 글로벌 협력팀, 자산재단 등으로 이뤄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Blackstone의 ESG 팀은 ESG 이슈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사 과정을 주도함. Blackstone은 직장 안전, 노동법 준수, 인권, 지속 가능성 성과, 다양성, 자선 기부 등에 중점을 두고 모든 포트폴리오 내 기업에 매년 ESG 설문지를 발송함
- 그리고 투자기업의 ESG 프로그램 구현과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도구, 전략 등을 제공하기도 함. 한편, 부패 방지 관행 및 규제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기업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ESG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의 이슈들에 대해 검토함. 또한, ESG 수행의 결과들을 정량화 하고 연도별 추세를 내부 자료로 축적함
- KKR의 임팩트 투자는 기후 행동, 평생 학습, 지속가능한 삶, 포용적 성장이라는 4가지 글로벌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UN SDGs를 달성하고자 함
- 임팩트 투자 보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관리팀과 협력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로부터 가치 창출의 기회와 해당 회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KKR은 임팩트 투자의 포트폴리오 회사와 함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기대치를 정의하고 매년 기대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함
-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내 위탁운용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ESG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자금을 일임받은 자산운용사가 공시하는 ESG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자산운용사의 ESG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 공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ESG 투자 실태를 보고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ESG 워싱(ESG-washing)을 선별하고 노출된 ESG 위험 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사모투자의 ESG 사례분석 및 시사점

- 국민연금연구원 21.12.27

A

- 사모투자의 투자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음. 딜 소싱(Deal sourcing),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 소유(Ownership), 매각(Exit)임. 이 4가지 각 단계에서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재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글로벌 사모 투자 운용사인 Partners Group 은 사모주식, 사모부동산, 사모인프라 및 사모 대출 등 네 가지 자산에 대해 ESG 고려사항을 평가함. 각 자산들의 모범 사례와 이에 대한 이해는 회사 전체에 공유됨. 2006년, Partners Group은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지침 원칙을 투자 활동에 통합했고 2008년 UNPRI의 서명함
- Partners Group의 책임투자 정책은 교토 의정서와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기타 국제적으로 승인된 협약과 규약을 근거로 함. ESG 고려사항을 관리하는 전담팀은 직접 투자, 기본 투자 및 보조 투자 전반에 걸쳐 이 작업을 수행함
- Partners Group은 2007년 Quadriga Capital과 제휴하여 AHT에 공동으로 투자함. 오스트리아 로텐만에 본사를 둔 AHT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상업용 수평형 냉각 및 냉동고 케이스 생산의 세계적인 선두업체임. Partners Group은 에너지 효율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사 과정에서 ESG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음
- 6년의 보유 기간 동안 AHT는 냉매 및 압축기 와 같은 제품 혁신에 집중하여 AHT 냉각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였고, "plug-in cooling" 이라 불리는 냉각 기술을 선도하여 경쟁업체들 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40만 미터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경감시킴. Partners Group의 보유 기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비즈니스는 계속 성공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연간 수익이 50% 이상 증가하여 3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해외 주요 대형 GP들은 이미 ESG를 그들의 투자정책에 녹여냈으며, ESG 평가나 공시 등이 전반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국민연금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GP들의 ESG 정책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사모투자의 ESG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임. GP의 ESG를 고려할 때는 특히 ESG 실사를 비롯하여 운용사의 ESG 평가 방법이나 평가체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기술, AEM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27

E

-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수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기술에 관심 증대됨. 수소는 원료와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수소로 구분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으로 수전해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임
-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개질이나 석탄을 가스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블루 수소는 그레이수소와 동일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및 활용·저장(CCUS)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생산함
-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수소임
- 현재 생산 중인 수소의 대부분은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레이수소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수전해 기술은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알칼라인, 고분자 전해질막(PEM), 음이온 교환막(AEM), 고체산화물(SOEC) 수전해로 구분되며, 기술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상용기술(알칼라인·PEM)과 차세대 기술(AEM·SOEC)로 분류됨
- 산업용 수소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알칼라인과 PEM 수전해 기술은 재생 에너지 설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가 필요함
- 차세대 수전해 기술은 기존 상용기술의 한계인 낮은 전류밀도(알칼라인)와 고가의 설비비(PEM)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로 AEM과 SOEC가 있음. AEM은 알칼라인의 알칼리성 작동환경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하는 PEM의 구조를 혼합한 기술임. 귀금속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출력 특성에 빠른 반응이 가능하여 그린수소 생산 최적화 기술로 부상 중임
- 유럽과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AEM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부재하여 국내기업이 선도적으로 기술 확보 및 사업화시 세계 수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 Tokuyama Corporation, 독일 Fumatech, Solvay 등에서 음이온 교환막 상용제품을 제작했으나 양이온 교환막 대비 내구성 등에서 열위해 수전해 설비에 적용되지 못하고 보완 기술을 개발 중임. 이탈리아 Acta SpA는 AEM Pilot 수전해 설비(0.09kg/h)를 개발했으며, Enapter의 경우 '22년에 MW급 AEM 설비를 출시할 예정임
-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이 '23년 상용화를 목표로 AEM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연구소에서 AEM 수전해에 관한 다양한 요소기술을 연구 중임

호주 스마트팜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 KOTRA 21.12.30

E

-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농업 A\$ 1,000억(U\$ 712억) 규모로 성장 목표를 설정함. 목표 달성을 위해 호주 정부는 Ag2030 계획을 발표하고 7개 주요 분야에 향후 A\$ 8억5,000만(U\$ 6억450만) 을 투입할 계획임
- 기후변화, 글로벌 식품 수요 및 트렌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농업 분야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결책으로 디지털화 및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그테크(AgTech) 도입 장려함
- 스마트팜 생태계 확장 중으로 최신 기술 수요·투자 증가함. 현지에 400개 이상의 어그테크 기업이 운영 중이며 스마트 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농업관리 플랫폼, 모니터링 시스템, 사물인터넷, 센서, 드론, 로봇기술, 수직농업 등 스마트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호주 정부에서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추진, A\$ 1억3,600만(U\$ 9,672만) 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외 투자협력 유치 중임
- 이에 한·호 스마트팜 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전망됨. 호주는 농식품 수요가 높은 아시아 시장과 근접하고 농업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등 무역이 활발함
- 국내기업의 경우 호주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 한국 ICT 기술의 강점을 활용, 호주의 대규모 농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체계의 스마트팜 기술 설계 및 테스트가 가능함
-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가 강하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으며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양질의 협력 파트너사 발굴이 필요함. 우리기업의 현지 스마트팜 진출 사례를 시작으로 IoT 기술 활용 스마트팜, 드론 제조, 건설재 조달 및 시공 분야 한국과의 협력 증가가 기대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HEAL

iShares Healthcare Innovation UCITS ETF

- 글로벌 기업 중 유동 시가총액 2억 유로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00만 유로 이상인 종목 대상
- 의료 장비 생산과 연구 개발, 제약 기술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관련 영업활동으로부터 매출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 편입. 기존 편입 종목의 관련 영업 활동 매출 비중이 50% 미만으로 내려갈 시 지수에서 배제
- 동일 가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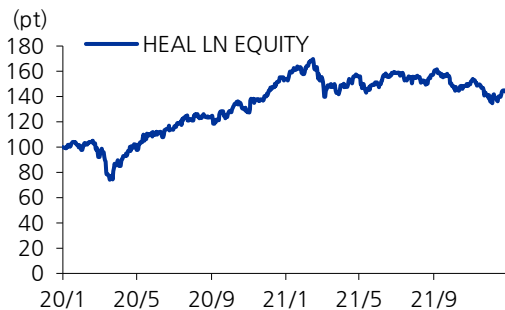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HEAL LN EQUITY
상장일	2016-09-12
운용사명	iShares ETFs/Ireland
총보수율(%)	0.4
기초지수	STOXX Global Breakthrough Healthcare
가중 방식	Equal Weight
주당 가격(달러)	9.62
보유종목 수	209
시가총액(백만달러)	2,136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추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0.4	3.6	-4.1	-6.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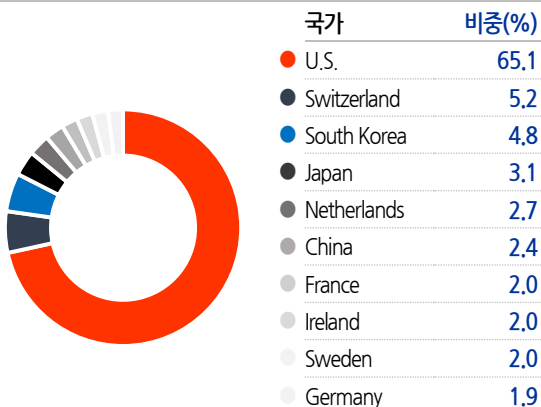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TMO US	Thermo Fisher Scientific	262,925	1.4
DXCM US	Dexcom Inc	52,042	1.3
BHVN US	Biohaven Pharma	9,027	1.3
EW US	Edwards Lifesciences	80,883	1.3
MTD US	Mettler-Toledo	39,011	1.3
6869 JP	Symex Corp	28,301	1.3
BPMC US	Blueprint Medicines	6,302	1.3
BIM FP	BioMerieux	16,832	1.2
ABT US	Abbott Laboratories	248,869	1.2
ISRG US	Intuitive Surgical Inc	128,355	1.2
합계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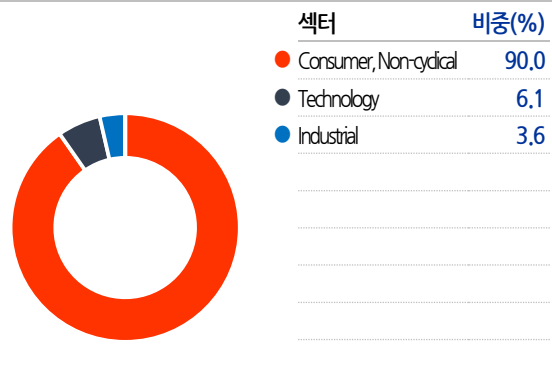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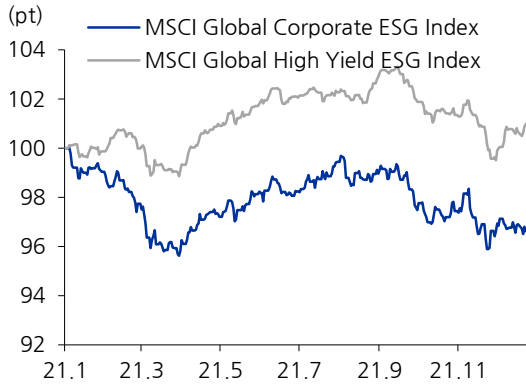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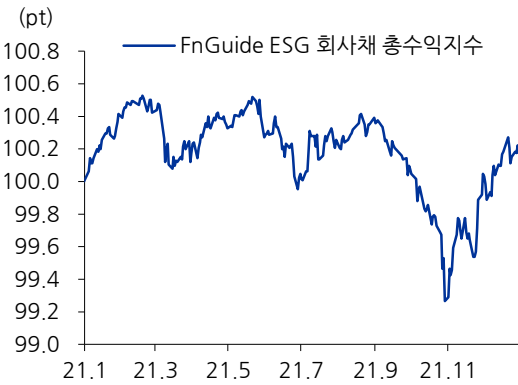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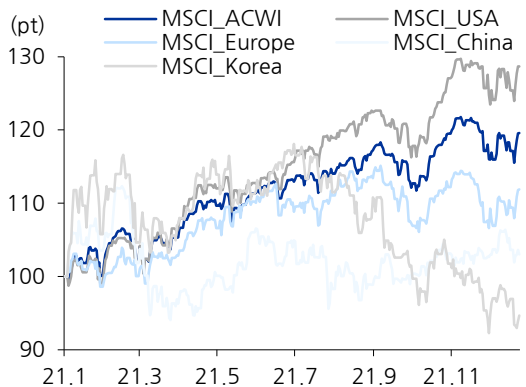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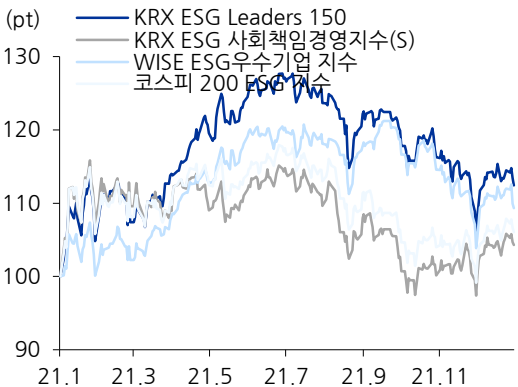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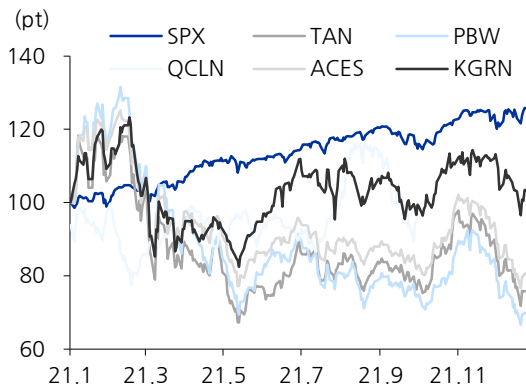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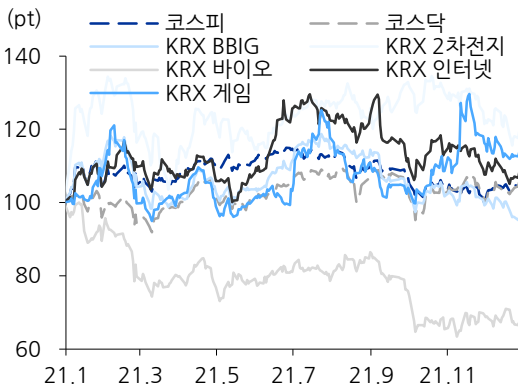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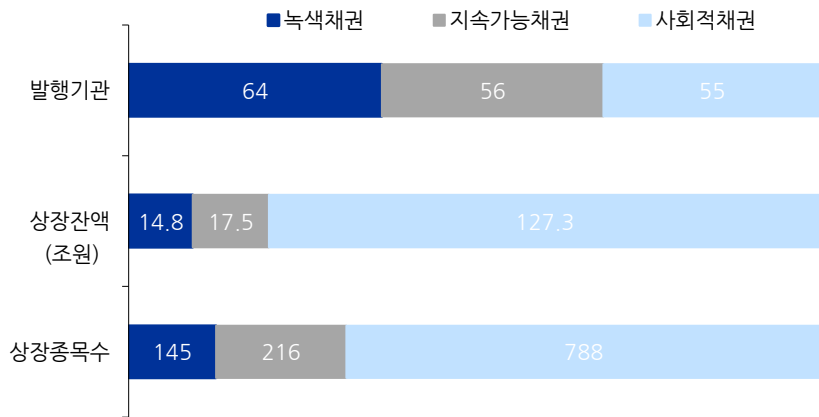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	-----	-----	-------	--------------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없음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